

금호석유화학, 여수 금싸라기 낙찰

적량지구 7만3000평방미터 450억원에 ... 두암지구 3000평은 성진이

여수 국가산업단지 주변 금싸라기 시유지가 금호석유화학으로 넘어갔다.

여수시는 여수단지 인근 적량지구 7만3000㎡, 두암지구 9000㎡ 등 2곳의 시유지 공개매각 결과 적량지구는 금호석유화학이 예정가 238억5900만원보다 211억8200만원 높은 450억4100만원에 낙찰됐다고 9월29일 발표했다.

<마지막 금싸라기> 시유지로 불리는 적량지구는 산업단지와 바로 인접하고 면적이 커 입주 석유화학기업들의 관심이 컸고 GS칼텍스, 한국실리콘 등 2곳도 응찰했으나 수십억원 차이로 고배를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.

예정가 20억원의 두암지구는 성진건설이 21억9500만원에 낙찰받았다.

여수시는 여수단지 주변마을 이주사업으로 생긴 부지 2곳에 대해 부지난에 시달리는 입주기업들의 매각요구가 빗발치자 공개매각에 나선 바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1/09/29>